

2022. 6.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설계공모 주관)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사업주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공공건축1팀장	육근형	2133-7617
담 당 자	조아라	2133-7621
금융투자과	김국진	2133-8547
투자관리팀장	엄태현	2133-4766
담 당 자	김대훈	2133-4768
관련 누리집	https://project.seoul.go.kr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서울시, 여의도 금융허브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밀그림 공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3.31~5.30 설계공모 진행...73개 작품 심사 거쳐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주)' 작품 선정
- ▲입체트러스 구조 ▲미디어파사드 계획 등 효율적인 공간구성, 상징적인 외관 담은 설계안 제시
- 여의도공원 옆 연면적 4,463㎡ 규모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조성...2027년 3월 개관 목표

- 서울 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기존 지원시설과 연계한 디지털금융 허브로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밀그림이 공개됐다.
-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주))'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에서 디지털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금융 인재양성 및 지원 기능을 총괄

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 연면적 4,463 m^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은 민선 4기 때부터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3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스타트업스 프롬 서울(Startups from Seoul)'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277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73개 작품이 제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시는 기술심사와 2차에 걸친 본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 특히, 시는 심사품질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새롭게 개선한 설계공모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가 공모 공고 전·후 총 2회로 열렸고, 심사 전 과정이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projectseoul2023)'을 통해 공개됐다.

- 기존에는 설계공모 공고 후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1회 운영했다.

- 당선작은 큰 틀에서 ▲압축적 외피 계획 ▲입체트러스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계획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계획 등을 제안했다.

- 당선작에 따르면 구조, 기능, 미 중심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건축방식으로 디지털의 근원적 방식 0과 1이 드러나는 추상적인 상징을 제안했다.

수평, 수직적으로 제한적인 대상지의 조건과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최대한 비워내도록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자연환기설비(급배기 및 창호), 에너지설비(태양광), 야간경관설비(미디어 파사드)를 통합하는 기술 집약적인 건물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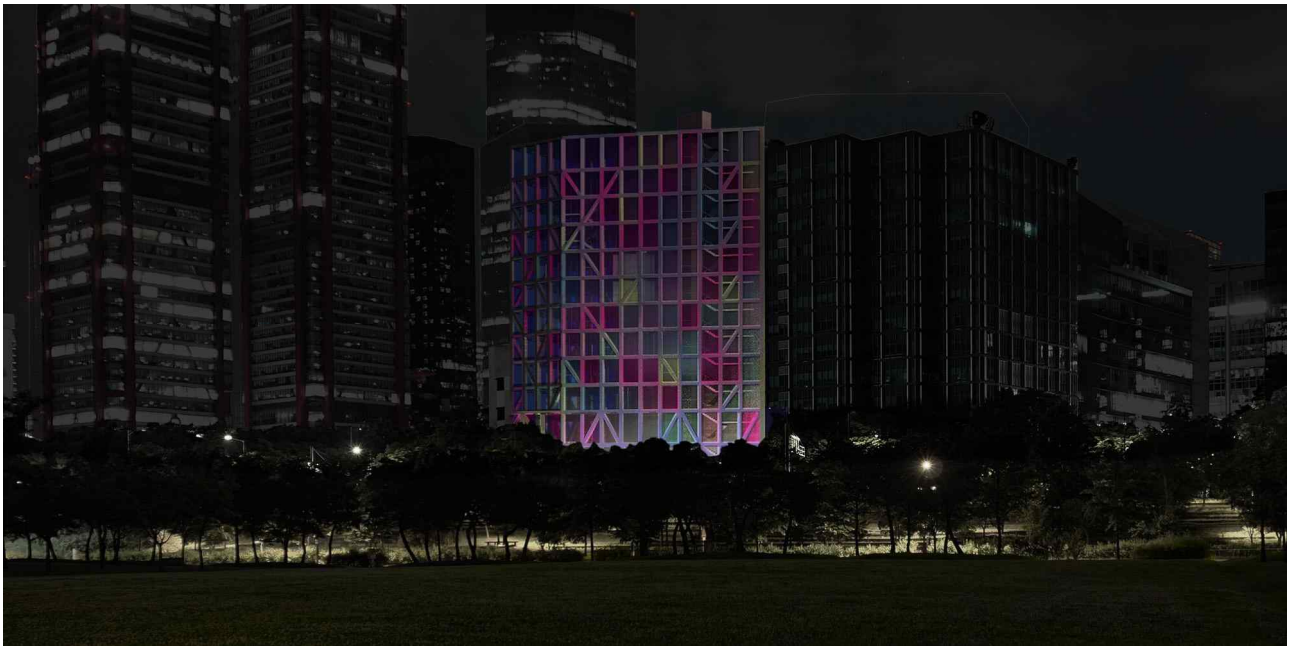
-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컨셉으로 은유적 경관을 연출하고 건축의 구조, 기능, 미를 통합적으로 해석했다”며, “효율적인 평면계획과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상징성과 중심성을 갖춘 간결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시는 당선자와 2024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202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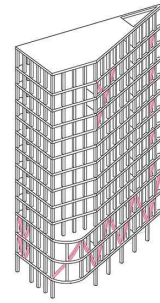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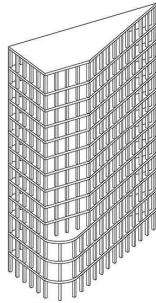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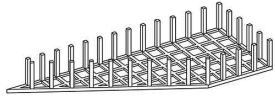
- 흥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설계공모에 당선작된 작품을 토대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업체명 (대표자)</p>	<p>손민정, 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주)</p>
<p>주요 특징</p>	<p>○(컨셉명 : 101/□/) 탈중심화,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금융은 기술 집약적이나 간결하고, 시스템이 견고하지만 유연하며, 실체가 없지만 이미지화되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제안안은 디지털금융이 가지는 간결함, 유연함의 기능적인 속성을 공간 구축의 논리로 삼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건축의 결과가 특정한 이미지(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구조, 기능, 미 중심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건축방식으로 디지털의 근원적 방식 0과 1이 드러나는 추상적인 상징을 제안했다.</p>



건축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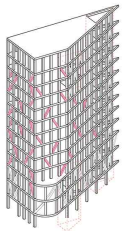


압축적인 외피

수평 수직적으로 제한적인 대상지의 조건과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내부를 최대한 비워내도록 콘크리트구조를 기본으로, 자연환기설비(급배기 및 창호), 에너지설비(태양광), 야간경관설비(미디어 파사드)를 통합하는 기술 집약적인 외피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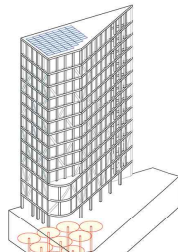
구조 : 입체트러스구조

외피를 따라 입면을 형성하는 콘크리트기둥을 조밀하게 배치하고 기둥사이를 와플슬라브로 엮어내었으며, 높은 층고의 구간과 수직적으로 열려 있는 구간에는 구조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새를 외피에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공간을 최대한 비워내고 현재의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요구를 남아낼 수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층간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학생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 스카이라운지, 로비를 제외하고 동일한 층고를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환기설비 : 창호

실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한 자연 환기 창호를 입면에 통합하고 건물의 구조성능 추가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작은 가새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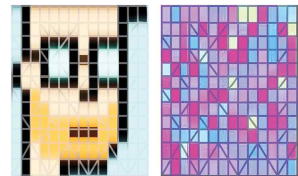


에너지설비 :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지열시스템과 태양광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획하였다. 태양광은 지붕통합형 BIPV시스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고려하여 남동쪽과 남서쪽일부 기둥,슬라브, 가새를 마감하는 재료로 무반사 컬러 BIPV 패널을 적용하였다.

외부환경 및 조경계획

대상지는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오래된나무, 오랜시간 구축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정적, 동적인 풍경들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무엇보다가를 닷볼이기 보다 전면에 연결한 여의도동 10-2부지와 연동하여 코너부분의 입구성을 확보하고 입구 옆 건물 가장 긴 면을 배경으로 하는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야간에도 상시 운영되는 시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형태의 보행자용 가로등을 계획하였다.



야간경관설비 : 미디어 파사드

격자를 기본으로 하는 외피는 픽셀화 된 입면으로 환경에서 근경까지 디지털금융지원센터와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야간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이다. 픽셀화 된 외피를 통해 NFT artwork를 포함한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건물 정체성의 일부로 드러낼 수 있다.